

경기도 김동연, 10월 열리는 제27차 세계한인 경제인대회 수원 유치 협약체결



김동연 지사, 18일 도쿄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식 참석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제 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치가 확정되면 대회가 열리는 오는 10월, 1천여 명에 달하는 옥타 회원과 기업인들이 수원을 찾을 전망이다.

자가 모이는 국제적 행사로 수출상담회와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도는 월드옥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진흥 사업 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월드옥타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등 청년 대상 기회 제공 프로그램과 관련된 네트워크 활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청년 지원과 취·창업 사업 등 협력사업도 발굴·시행할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후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주최 '제2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과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경기도(수원시) 유치', '수출지원 파트너십', '경기청년사다리 업무협력' 등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축사에서 "세계 한인 경제인 여러분은 지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 지금 전 세계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라며 "경기도는 '세계가 찾는 경기', '글로벌 기업이 성장을 기대하는 경기'로 더 많은 기회가 넘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 월드옥타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공동 추진한다. 월드옥타는 20일 다음 개최지를 공식 발표하며 개최 장소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계 월드옥타 회원과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

자 67개국 142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옥타 소속 한인 기업인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최식에서 월드옥타 회원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인,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 강연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금기깨기"를 주제로 추격경제의 금기, 세습사회의 금기, 기득권 정치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방



식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을 키우고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철밥통'과 순혈주의를 깨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한편, 정치판의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다. 1981년 창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는 67개국에 142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정회원 7천여 명과 차세대 회원 2만 6천여 명이 소속된 단체다. 회원 상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적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며, 모국의 무역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가능한 SFTS, 예방·관리 위한 사람-동물 공동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수의사, 반려동물 종사자, 군견병 등)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의 사람-동물 간 2차감염 예방 및 고위험군(수의사, 반려동물 종사자, 군견병 등) 보호 강화를 위해, 4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계부처 및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SFTS 사람-동물 간 전파사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SFTS는 주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한다. 사람에서는 치명률이 12~47%로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 조기인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에손상된 피부(점막)가 노출될 경우 2차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SFTS에 감염된 사람 또는 동물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 에손상된 피부(점막)가 노출될 경우 2차감염 즉, 사람-동물 간 SFTS 전파(사람→동물, 동물→사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동 감시체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총 73건(65마리)의 동물 양성사례 및 2건의 2차감염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사업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7%가 "SFTS 2차감염에 대한 인식과 예방수칙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사업 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했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사업 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했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

이 같은 시범사업의 결과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 올해는 사업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사업 대상에 군견과 군견병을 추가했다. 군견은 정찰 등 야외훈련을 통해 진드

경북도, 지역인재 디지털 역량 강화로 미래를 준비한다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 개최

경북도는 19일 경북ICT노베이션스퀘어(김천시 소재)에서 미래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지역 고등·대학생을 초청해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카오록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전 첫 강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IT전문가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이 챗GPT가 물고 인공지능 열풍을 아이폰 출시에 비유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설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포항테크노파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카

이와 함께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터브에 대한 기술 요소와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분야 지역 스타트업 유메타랩(경산시 소재)의 창업자인 서승완 대표가 생성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으로 '프롭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떠오르는 직업군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강연내용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홈페이지와 포항테크노파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설립, 경북형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인공지능대학원, 메타버스랩 등 학업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혁신과장은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를 진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핵심기술이 메타버스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9만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장애인 정책 체감 효과 높도록 지속 노력"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9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노관규 순천시장, 장애인단체와 시설 관계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현장 낭독, 유공자 표창장 수여,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과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에서 "한 사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다양성이라는 가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며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장애인 정책 예산이 2019년 1,183억 원에서 2023년 2,779억 원으로 큰 폭 증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정책성고가 나타나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 채택

용인특례시의회는 19일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원균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전원이 공동발의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윤원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용인시남사읍, 이동을 일원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해 시스템 반도체 공장 5개를 구축해 국내외 소부장, 팹리스 기업 150개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시초가 된 기흥 삼성반도체를 비롯해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 플랫폼시티, 국가첨단산업단지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100년 미래를 밝힐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에 협력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 벨트 안에 많은 기업을 집적화해 공급망을 확보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만큼 배후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주거, 환경, 교육, 문화,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체계적인 도시계획



검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지도 84호선의 원삼, 백암 연장, 미개설 단절 구간인 마평동~모현을 간 국지도 57호선 연결공사의 조속한 착공,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조속한 반영

▲용인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들과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 시 지역 업체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용인시 농산물 및 관내 기업 생산물품의 우선 공급과 지역주민 우

선 채용 방안 마련

▲사업대상지에 있는 500여 세대의 시민과 70여 개의 기업이 다시 용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전지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과 수용되는 토지는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협력 요구 성명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8일 고양상당소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 윤탈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화정터미널을 비롯한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경기도 버스터미널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 관계자 및 고속버스 조합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화정터미널의 폐업은 결정됐으며, 고양백석터미널로 일원화할 방침으로, 임시 정류장 설치도 추진하지 않

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이 많다 보니 터미널 사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윤탈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화정터미널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앞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화정터미널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고, 버스 노선 확대,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바 있다.

조혜영/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방음터널 화재 취약 방음판 교체 현장 점검

제318회 임시회 중 PMMA 방음판 교체중인 염곡동서지하차도 방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17일 제318회 임시회 일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 소재의 방음판을 교체중인 '염곡동서지하차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설물이 소실되면서 관내 유사 형태의 방음터널에 대한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방재시설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설치된 총 19곳의 방음터널 중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PMMA) 재질을 사용한 취약 방음터널은 8곳으로 '24년 2월까지 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음판을 화재안전성

이 높은 소재로 교체하고 진입차단 설비 등 방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을 방문한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의 방음터널 화재는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 소재도 원인이었지만 화재발생 시 대피나 연기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라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화재 취약 방음판 교체와 함께 제연설비·비상대피로 같은 방재시설의 확충을 주문하며, 우선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1곳의 잔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방재시설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음판 교체에 있어 방음판 소재의 품질기준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며 품질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음벽에 비

해 화재에 취약하면서 경제성이 낮은 방음터널 설치를 최소화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참고로, 염곡동서지하차도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염곡사거리를 동서방향으로 횡단하는 연장 640m 지하차도로서 수서IC 방향 종점부에 높이 5.5m, 연장 239m의 방음터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은 점함유리이나 지붕부는 아크릴(PMMA) 소재로 되어 있어 교체 작업을 실시중에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송도호(판악1)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호(용산1), 박철성(구로4) 부위원장, 김길영(강남6), 김춘곤(강서4), 김형재(강남2), 박성연(광진2),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경상북도 |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강원도의회, 강릉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부 및 자장면 급식 봉사 참여

강원도의회는 19일 강릉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대피소(강릉 아이스아레나)를 찾아 강릉 산불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자장면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강원도의회는 49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마련한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짜장차(대표 오종현)' 급식 봉사를

실시하여 이재민과 현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자장면을 대접했다.

권혁열 의장은 "산불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가 함께 힘을 내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산불 피해주민을 위로했으며, 지역을 넘어 나눔의 정신으로 연

대와 협력의 의미를 실천하여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응원에 동참하여 주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성금을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기탁하여 귀감이 되는 등 봉사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등원/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WP풍력단지 설치관련 환경부주관 공동조사단 현지 실사

13인 의결시, 정의당 의원측 추천/의원실 포함시 6대1 스코어에서 의결 강행의 년센스 초래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정감사시 풍력반대자 거짓정보에 공동조사 요구해

공동조사단은 환경부, 국립생태원, 동·식물 전문가 등 18인 전문가로 구성돼

공동조사단위원 중, 영양풍력설치 반대자가 주민대표로 포함돼 논란 야기

조사후 의결시 비전문가 포함시, 최악조건하 의결기구로 수용불가론 대두

지난 17일(월) 12시 30분부터 4월 21일(금)까지 5일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시 이곳 영양군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거주 정의당 이은주의원(비례대표)이 AWP영양풍력발전단지가 제출한 보고서가 거짓이라는 소수반대자의 거짓 반대이유를 수용해 이를 감사시 제기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도 없이 정의당 단독으로 전락한평가를 하도록 환경부를 독려했다. 이 날 현지조사를 위해 영양으로 달려와 조사를 하게 됐다.

본지 취재진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시해 꾸러진 현지조사단 구성에서부터 여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취재중 특히 의문시되는 점은 현지공동조사단 18명에 대한 구성안이 너무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환경부와 사업자측에도 의문점이 들었고, 이렇게 조사단 구성을 꾸리도록 환경평가단에 요구한 정의당 이은주의의원측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됨을 감출 수 없게해, 이번 조사에 실시하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현장조사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에 관한 현지조사단의 이모저모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 봤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5일간의 현지 조사후, 약 10일 이후 진행될 조사내용 심의의 결과정시 이를 결정하는 '의결기구 구성원 편성'의 문제점은 심각성 그 자체였음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단의 조사후 의결기구 구성은 전문가 6명(산양전문가 4, 식생전문가 2)과 검토기관 4명(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평가 결과를 의결해야만 조사결과와 신뢰성과 폭력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한데, 정의당 이은주 의원측은 이런 구성원에 비전문가인 의원측 2명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아 영양군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인 가짜영양주민대표인 S모씨(영양군민들은 가짜 주민대표라고 칭함)를 지정 포함시킴으로써 13명의 위원으로 최종의결을 하겠다는 불공정한 처사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숲세 정의당 단독판 조사단으로 구성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대로 비전문가를 의결과정에 포함할 시는 결단코, '불공정한 의결기구'란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어, 이는 자칫 이 의원측의 지나친 갑질로 비춰 질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인다.

이 불공정한 의결기구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산양전문가는 4명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추천 1명, 가짜 영양주민대표 S모씨 추천 1명, 풍력사업자 추천 1명, 그리고 승인기관 1명으로 편성됐다. 이 구성원은 중립인 승인기관 1명을 제외할 시, 풍력반대이측은 2명이요 사업자 측은 1명으로 사업자측은 2대 1의 열악한 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해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식생 전문가는 2명이다. 의원실·주민대표 추천 1명, 환경부 추천 1명이다. 이 구성원은 숲세 사업자측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편성으로 중립인 환경부 추천인을 제외한다면 이곳에서도 사업자측은 1대 0의 열악한 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해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셋째, 가장 심각한 의혹은 사업자측이 주장하는 불공정의 대명사인 비전문가 3명을 포함한 점이다. 이 구성원은 정의당 이은주의의원실 2명, 가짜 주민대표 1명 등 3명을 의결기관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자측은 3대 0이 최악상황에서 의결과정에 임하므로써 불공정의 총집결체가 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때, 13명의 의결구성원 중, 검토기관 4명과 산양 및 식생전문가 중립인원 2명을 제외한 상황에서 이미 편성이 난 6대 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앞선 가운데 게임을 치르는 것과 같다. 만약 나머지 6분의 중립입장의 검토기관 및 추천된 전문가분들 중 한분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결국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부결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깔고 하는 오류투성이의 구성원안으로 도마위에 올려 놓은 생선처럼 정의당 이은주의의원측 맘대로 도마질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사업자측은 비전문가인 정의당 의원실 2명, 가짜 주민대표는 최종 의결기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명분있고 사리에 합당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처럼 일방통행식 조사구성원에 대해서 비록 이번 조사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번 조사의 불분부담함을 들어 이 조사결과를 거부할 대의명분을 확실하게 보장 받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왜 사업자측이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구성원임에도 이를 수용하면서, 의결기구에 비전문가 3명을 제외한 10명의 전문가/검토기관 구성원으로만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는 점이다.▶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은 서식지이다. 이곳 풍력건설예정지역에 산양이 나타났다. 발달하고 날개 달린 짐승이 어디인들 무엇일까? 사업자측은 산양 출몰은 있으나 산양이 다니는 길이지 그곳은 전혀 서식지가 아님을 발견해, 이번 조사에 자신감이 있는 까닭에 비록 불공정한 조건하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지만, 검토기관과 전문가분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사명감·책임감을 믿고 지난 8~9년간 동물들을 고려한 최종 안을 제시했고, 불공정한 현지조사단 구성에도 이를 수

용했으나, 비전문가 3인은 최종 의결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풍력발전단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무학리 주민도 아닌 외지에서 살다가 영양군으로 들어와 풍력발전단지에서 4km나 떨어져 살고있는 S모씨(남, 기산리 소재)를 영양군 어느 누가 주민대표로 뽑았는지와 누가 그를 임명했는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7일, 현지실사로 온 환경부소속 공무원에게 질의시 "누가 S모씨를 영양주민대표라고 지명했는지, 그를 공동조사단에 넣어 달라고 얘기한 분이 누구냐?" 하는 질의에 환경부 담당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추천이 들어오면서 그를 주민대표로 해달라해서 하게됐다"고 답했다.

또한, "S모씨는 외지에서 살고 있다가 영양으로 들어 온, 댄대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사람으로서 영양주민들이 혐오해 하는 분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어찌 그런자를 버젓이 영양주민대표라고 공동조사단에 편성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머뭇거리면서 "정의당 이은주의의원실에서 추천돼서 공동조사위원으로 넣게 됐다"고 답해 이는 환경부의 소신없는 행정과 정의당 이은주의의원측의 불공정한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서 질은 의혹을 감출수 없게하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 18일 오전 9시 28분, 정의당 이은주의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지금 이곳 AWP영양풍력발전단지 대다수 찬성 주민들은 이 의원측이 영양군민들이 싫어하고 늘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S모씨를 영양주민 대표로 추천한 이유와 이를 종용해 그를 공동조사위원으로 편성 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의견을 개진 하자, "지금 바쁘고 자신은 내용을 알 수 없어 전달하겠다"는 일방적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의 비서진이 국민의 말을 무시하는 갑질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 공동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명색이 공동조사단은 나름 해당분야의 전문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뭉쳐진 분들일진대, 주야장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비전문가를 주민대표로 넣은 점과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실에서 조사단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어, 이는 조사의 신뢰성과 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어 후일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동조사단 구성에서부터 온갖 의혹과 외압의 흔적을 잔뜩 안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지난해 환경부 감사시 이 의원실과 환경부, 영양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 측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현지공동조사단은 감사 당시, 산양 등을 제출한 사업자 측의 보고서를 풍력반대이측이 거짓보고서라고 비난하며 제기된 문제점에 따라 이날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조사단 첫 출발지인 무학리 3거리에서 만난 찬성측 L모씨(남, 무학리 인근 주민)는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국회의원의 외압에 눌러 대다수 지역주민의 풍력찬성 목소리를 무시한 채, 비전문가를 조사단에 편성했다"고 환경부와 정의당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정의당 의원측 조사단 구성 거부, 가짜 영양군민대표 조사관 수용을 백지화하고 정의당은 즉각 영양명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영덕군에서 이곳 영양군에 와서 풍력반대를 외치는 자들은 즉각 영양 땅을 나가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막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반면, 군 인구의 0.1~0.2%에 불과한 극소수 풍력반대위는 "환경 보전을 위해 지역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환경부 조사단 책임자와의 질의과정에 풍력반대자들 앞에서 "우리는 XX를 받고 올라갔다 왔다."고 하였고, 또 다른 반대자는 "우리의 반대의 목적은 X때문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취재진이 질의간 녹음내용에서 드러났다.

한편, 정의당 비전문가 구성원은 이날 현지 조사에 불참했고, 조사 중간시점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가짜 주민대표인 S모씨는 찬성측의 완강한 진입 거부로 출입이 제한을 받다가 사업자측의 양해로 겨우 출입을 허가해 줬다. 이외에도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대한 영양군 각계 반응을 살펴보면, "풍력은 반드시 하되, 많은 세수가 들어오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철저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번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설치와 관련해서 도대체 환경청에서 영양군과 아무 연고도 없는 정의당 이은주의원의 환경

평가 현지 실사를 받아 들여 준 것 자체도 너무도 구니 없는 일이요 소신없는 행정"이라

고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이다.

일부 지역주민은 "혹여, 환경부가 감사시 국회의원의 제기에 귀찮아서 떠넘기려는 모양새가 아닐까?"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점들을 들어 볼 때 이는 공직자로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기에 환경부는 더는 소수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빠져 소신없는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은주 의원측에도 더는 영양군의 AWP풍력발전단지 설치에 감나라대추나라 하는 것은 월권으로 비춰 질 수도 있기에 이 문제 제기로 사업 추진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여겨진다.

사업자측 K본부장은 "혹여, 이번 조사 후, 의사 결정기구에 비전문가를 포함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AWP풍력발전단지를 부결시키자는 의도 말고는 그 어느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처사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AWP영양풍력단지 현지공동조사단 강행 추진관련 여러 사안들은 조사단 구성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아 첫 단추부터 잘못 댄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의혹을 원천배제하고 오로지 「순수한 전문가와 검토기관」만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 의한 현지 실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 영양군은 전국적으로 재정자리도가 6.02%에 불과한 참으로 열악한 군이다. 영양군민들의 입장은 "에너지가 없어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이다.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서 이곳 영양군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조사단 위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적 식견으로 영양군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AWP풍력발전단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돼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여 지기를 원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4·19혁명 기념사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주의 누려"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일 맞아 시민들에게 메시지 전해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혁명의 의지를 계승해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4·19혁명 기념사에서 "4·19 혁명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전한 민주주의 혁명이자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첫 승리"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싹틔우는 전환점이 됐고, 오늘날 모두가 마음껏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를 언급하며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공요금까지 급등하며 위기란 단어를 누구나 체감하고 있다"면서 "혁명의 의지를 받들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 희망을 그리며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특히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부상자에게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민주 영령



4.19혁명의 의지를 받들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그리며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3. 4.19. 기념사 중 최대호

들의 숭고한 정신과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준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차디찬 겨울을 보내고 화사하게 꽃이 만발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꽃을 피우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우용/기자

평택시 약사회 사랑의 실버카 전달



평택시는 평택시 약사회(회장 변영태)와 지난 18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약사회 임원과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실버카(보행 보조기)' 전달식을 했다.

실버카는 어르신들이 손잡이를 잡고 지지하여 보행을 할 수 있는 보행 보조차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평택시 약사회(회장 변영태)는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의 튼튼한 두 발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후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년 50~60대씩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총 570대의 실버카를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평택시 약사회는 정기적으로 외국인 무료 진료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어 소외된 이웃들에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평택시 약사회가 기증한 실버카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에게 남부·북부·서부지역별 방문간호사가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주는 평택시 약사회에 감사드리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시현/기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 해법 논의... 광명시, 21일 국회토론회

광명시,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국회토론회 개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거부하는 광명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사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받고 있다.

광명시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과 광명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발제는 소순창 건국대 교수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장이 맡는다. 이 교수는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 지역주민'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지역문제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간 관계 등을 짚어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협력 관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갈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한 상생 방안 마련 등 공공갈등 해소방안을 제안한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는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우철 국회의원정책연구위원,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하는 광명시민이 76.2%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합의의 선행 등 정부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안산시, 독일 아헨특구시와 수소 분야 우호협력 증진 실행협약서 체결

신재생에너지부터 문화·관광·청소년 분야까지 교류 확대... 성공적인 지자체 국제협력 모델

안산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아헨특구시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전개하기 위한 실행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아헨특구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민근 시장과 팀 그뤼테아이어 아헨특구시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안산시와 독일 아헨특구시는 지난 2019년 4월 상호발전을 위한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실행협약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증진하고 문화, 관광, 청소년 분야까지 교류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서 체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신재생에너지 정보 공유 ▲상호 인적교류 및 투자유치 등 호혜적 관계 형성 ▲문화·관광·청소년 교류 추진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산시는 아헨특구시와의 이번 실행협약서 체결을 바탕으로 독일과의 수소산업 교류를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소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안산시와 아헨특구시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국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헨특구시장은 "이번 실행협약서 체결로 안산시와 더욱 발전된 협력 관계를 기대한다"며 "향후 안산시를 방문해 더욱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후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을 방문한 이 시장은 아헨특구시 수소산업 네트워크인 '수소허브 아헨(the Hydrogen Hub Aachen)'의 대표자와도 면담하고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소시범 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버스 운영 ▲수소생산과 이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물결과 음악이 넘실대는 '서핑 버스킹 Waves of Music' 거북섬에서 즐겨요

시흥시가 거북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및 관광객의 토요일 감성을 가득 채워줄 버스킹(거리공연)을 진행한다. 오는 4월 22일을 시작으로 6월 24일까지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거북섬(MTV) 웨이브파크 앞 광장에서 물결과 함께하는 '거북섬 버스킹 Waves Of Music'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웨이브파크를 무대 삼아 1시간가량 열리는 버스킹은 일 2개 팀 공연으로 각 30분간 펼쳐지며, 4월 29일과 5월 27일은 3개 팀 공연으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특히, 5월 27일은 웨이브파크 전면 무료 개방일로 웨이브파크 내 무대에서 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버스킹을 통해 가요, 뮤지컬, 국악, 락, 밴드,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 출연진을 살펴보면 △4월 22일 '신경우(인디포크), 헬로포터(마술, 마임, 코미디) △4월 29일 루엔(대중가요),

미지니(가요), 국악인가요(퓨전 국악) △5월 6일 뮤페라N샤르망(뮤지컬&오페라), 헬로포터(마술, 마임, 코미디) △5월 13일 카키마젠크(인디밴드), 현타밴드(어쿠스틱 팝) △5월 20일 운드힐즈(어쿠스틱), 버블(매직벌룬쇼) 등이 마련돼 있다.

향후 이어지는 공연 참가 팀 안내는 시흥시청 누리집 내 소식 게시판, 시흥문화예술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웨이브파크의 서핑장을 배경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버스킹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봄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이가 즐기고 찾는 거북섬이 될 수 있도록 명소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킹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기를 띠고, 시민들과 시흥시를 찾아주는 방문객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우용/기자



'뚝심'김경희 이천시장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현장 방문

김경희 이천시장은 18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설봉호수 아랫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재생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문화공연조성, 주민활동공간 및 청년활동공간이 조성된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전터마을은 설봉호수 아래 위치한 자연발생 주거지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으나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천시 대표 아름다운 마을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마전터마을을 바로 옆을 흐르는 중리천도 함께 정비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이야기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이천시에서도 특화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는 청년들이 활동하게 될 공간(143.2㎡)이 마련되는데



지역기반 청년 단체모임 및 청년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공간 등에 활용될 예정이고, 주민활동공간(90.69㎡)은 마을활력소,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마을공방 등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오는 5월 31일

준공에 맞춰 마무리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경제기반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해 관동동 지역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성윤/기자

'지구의 미래는 너야... 광명시, 지구의 날 맞아 다양한 탄소중립 행사

20일 오후 2시, 광명시민체육관 일대에서 지구의 날 행사

광명시는 20일 제53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심각성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올해 광명시 지구의 날의 주제는 '지구의 미래는 너야!'이다.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년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 일대에서 열리며 자전거 행진 캠페인과 에코백 만들기 등 30여 가지 탄소중립 체험을 준비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박승원 시장은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시민들의 동참으로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험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본 행사 시작 전인 오후 1시에는 광명YMCA 주관으로 자전거 행진 캠페인이 열린다. 이번 캠페인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광명시 곳곳에 지구의 소중함을 전달하기 위

한 것으로 자전거 동호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광명시민체육관, 철산동, 소하동 일대를 행진한다.

광명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는 ▲ 지구야 사랑해 에코백 만들기 ▲ 지구 걱정 이제 그만, 걱정 인형 만들기 ▲ 발전 자전거로 만드는 과일주스 등 30여 가지 현장체험을 운영한다.

텀블러 등 개인 용기를 지참하면 채식 브런치 디저트, 친환경세계 소분 등 현장체험 참여가 수월하다.

현장 체험을 할 때마다 스탬프를 발행해 스탬프 개수에 따라 기념품과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탬프 미션도 열린다. 안 쓰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장바구니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22일 밤 8시부터 10분 동안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광명시 대표 탄소중립 정책인 '1.5°C 기후의병'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존에 기후의병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도 현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가입해 참여할 수 있다.

윤용민/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첫 해외방문서 4조3천여억 원 역대 최고 투자유치액 기록

김동연 도지사 9박 11일간 첫 해외 출장 마치고 19일 귀국

해외투자 유치와 청년기회 확대, 혁신 동맹 구축을 목표로 지난 9일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조 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미국 유명 대학,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등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합인, 미국-일본 주요 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안고 19일 귀국한다.

김 지사는 9박 11일간 미국 미시간,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일본 도쿄와 가나가와현 등 총 2개 국가 7개 지역 2만 5천km가 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가 거둔 4조 3천여억 원의 투자유치액은 역대 경기도지사가 단일 해외 출장에서 기록한 투자 유치 규모 가운데 최대다.

◆ 단일 해외 출장 기준 4조 원 넘은 최대 투자유치 금액 기록

첫째도 투자유치, 둘째도 투자유치라며 이번 해외 방문의 가장 큰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내세운 김 지사는 6개 해외 기업으로부터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김 지사는 ESR켄달스퀘어(주)와 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 유치,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사와 5천억 원 규모, 또 다른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Linde)사와 한화 5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사는 종합연구소를 경기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일본 알박(ULVAC)그룹은 평택 여원-한산 외국인 투자산업단지에서 기술개발 연구소를 짓고 1,330억 원을 투자해 150여 명 규모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핵심 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일본 도쿄오카공업은 평택 포승(BIX)지구에 1,010억 원을 투자해 포토레지스트 제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 미국 유명대학 2곳,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협약

투자유치와 함께 미국 주요 방문목적 청년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미시간주립대, 뉴욕주립대버팔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대학 연수와



▲ 현지시간 18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첫번째)와 이재준 수원시장(오른쪽 첫번째)이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월드옥타) 제 2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더 높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주고 다양한 진로 개척과 도전 의지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미시간대, 뉴욕주립대버팔로 등 미국 대학 두 곳에 이어 일본 방문 기간 중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와 함께 경기도가 진행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미시간대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대학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소속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마다 300여 명을 경기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미시간-버지니아주, 일본 가나가와현과도 협력 다짐, 외교사절 역할도 수행

이번 해외 방문 동안 빠뜨릴 수 없는 성과 가운데 하나는 양 지역 주요 자치단체장들과의 만남과 교류 협력에 대한 공감대 구축이다.

김 지사는 11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시간 주지사 만나 자담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혁신 동맹 구축 추진에 공감했다. 이어 14일에는 글렌 영킨(Glenn Youngkin) 버지니아 주지사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 지역 간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빠른 시간 내에 재회를 약속한 상태여서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7일에는 경기도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 구로이와 유지(Kuroiwa Yuji) 지사와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하며 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북미연구소(HATCI)의 요청으로 미시간 주지사의 안전 시험센터 준공식 참석 답례를 받아낸 현지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성과도 얻었다. 월드옥타와는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기도 수원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 경기도의 잠재력, 김 지사의 준비된 깊이 있는 대화가 기대 이상의 성과 올려

이번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김 지사는 "대단히 만족한다. 기대 이상이었다"라며 "더 많은 투자를 위한 좋은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이번 성과의 원동력으로 도의 잠재력과 글로벌 기업 대표, 정치인들과 김 지사의 깊이 있는 대화를 꼽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삼성과 현대, SK하이닉스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과 세계 1~4위 반도체 장비기업들의 연구소가 있는 경기도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수도

권과 가까운 경기도의 입지, 우수한 기술 인력 보유 등의 요소도 한몫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기업 대표나 해외 자치단체장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반도체의 메카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부가가치의 83%가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고,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1~4위 연구소가 경기도에 등지를 트는 등 명실상부한 반도체의 중심지"라며 도의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국을 만들었고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과, 첨단모빌리티과, AI빅데이터 등을 신선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라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김 지사의 개인 역량도 이번 투자유치 성과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김 지사는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관심사에 대해 아이스브레이킹(회의전에 가볍게 던지는 농담이나 대화)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높게 평가를 한 것 같다"라며 후일담을 전했다. 딱딱하고 긴장될 수 있는 회의지만 사전에 상대방 관심사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든 김 지사만의 대화법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이 공감하면서 추가 투자 의사를 표명했다. 개별적으로 주지사, CEO 등에 대해 미리 파악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제가 임기 중에 100조 이상의 국내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주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 최소한 100조 이상의 국내의 투자를 경기도에 유치할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임기 내 100조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경기도는 올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오산시, SOC 사업 위해 허리띠 졸라맨다

이권재 시장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 누수 안돼"... 조직개편 등 '50억 절약'



오산시가 지역의 당면한 현안 SOC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오는 7월 제2회 2지구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정체가 심화돼 시민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출·퇴근시간 대 병목현상이 극심한, 오산을 동서로 잇는 경부선 횡단도로 건설이 시급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늘어가는 행정·복지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동인 대원동과 신장동에 임시청사 조성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청사를 건설해야 하는 것,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박람회, 대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컨벤션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의 공급해야 하는 것 등의 과제도 시급성을 띤다.

이처럼 다양하고, 시급한 SOC 사업이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비율 초과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시 입장이다.

이권재 시장은 "사업 및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 없이 지속 운영한다면 주요 정책 사업에 재정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면한 현안 사업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도 부족할 판에, 방만한 시정 운영에 따른 페널티로 자금을 잃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7월 '초긴축 재정운영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안정 속에 성장하는 오산을 만들겠다고 피력한 이래로, ▲공무원 조직 효율화 ▲방만한 산하기관 구조조정 ▲민간단체 지원금 축소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총 50억 원 가량 절감 하는 성과를 냈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 기준 인건비 대비 17%를 초과한 상태로, 개정된 지방교부세법에 지난해 기준을 적용,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을 경우 2025년부터 매년 대략 100억 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위하다.

이에 시는 최근 부활한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청사경비 인력 축소에 나섰다.

산하기관의 경우 정수를 조정하거나, 본부장급 폐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연봉을 하향조정, 사무실 통합 등을 통해 21억 원 상당의 지출을 줄이게 됐다.

격년으로 진행돼 온 공무원 한마음 연수를 3년 1회로 변경해 총 1억 5천만 원을 절감했다. 각종 민간단체의 경우 관련 부서나 유사 단체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총 3억 7천만 원가량 대폭 삭감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오산시 포함 2개 시·군만 100% 지원해 온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50%는 자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도내 일부 시·군만이 사용료를 50% 가량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군은 전액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현실화 구상이다.

이권재 시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집행을 봉쇄 하겠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늘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국제꽃박람회, 끝까지 시민 감동"

19일 간부회의서 전 부서 '고양시의 대표적 축제' 봄 조성 당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개막 1주일을 앞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 총력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의 대표적 축제"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가 성공의 밑거름이기에 끝까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꽃박람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꽃박람회의 분위기가 부족하다"며 "전 부서에서 꽃박람회 불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언론 매체나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나 회의, 교육 시에 꽃박람회 홍보영상을 상영하거나 현수막을 부착장, 주요 사거리, 각종 행사장 입구 등에 설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특히 "각 동마다 초화식재를 통해 꽃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하고 꽃박람회의 향기가 서울·경기·인천 등에서 회자되게, 꽃박람회재단뿐만 아니라 공직자 각자가 지인들에게 박람회 포토뉴스를 안내하는 등 개막 전까지 홍보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읽는 사이에 - 변화하는 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고양시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2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 고양시는 책을 접하기 쉬운 여건"이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책의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 수 있도록 월 1권 책 읽기에 노력하고, 독서대전에 시민이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독려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고양시가 '최우수'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 "민선8기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고양시가 그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실천 전략까지 기틀을 잘 마련했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고양시는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창릉천 통합하천공모사업에 따른 제2호수공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조성, 자유로-강변북로 지하화고속도로를 실현할 수 있는 고양-양재 고속도로사업, 법안을 마련 중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맞춤형 재건축' 등의 공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1차 통과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 시장은 이에 "예산 부족과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우선 TF 구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는 9월 고양종합운동장 등에서 열리는 '2023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해 나아가 전국체전 및 아시안게임까지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인프라 구축 및 플랜 수립 강구에도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영기/기자

영주시,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평가 '최고등급' 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서 최우수 'SA 등급' 획득

영주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인 'S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갯총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4개 분야이며,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 80점 미만은 B, C, D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영주시를 포함해 모두 51곳이며, 시 순위는 21곳이다.

시는 공약실천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의 부서 검토회의를 수렴을 거친 후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개최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으로 공약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활력있는 지역경제(10개 사



업) △미래지향 부자농촌(8개 사업) △신명나는 문화관광(15개 사업) △함께하는 행복도시(11개 사업) △청렴경영 일등행정(9개 사업) 5대 분야 53개의 공약을 부서별 추진 점검 및 자체 평가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한 약속인 공약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으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영주 발전과 혁신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시민이 공약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시 누리집 '열린시장실'에 공약실천계획서를 공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4월 산하기관장회의에서 통합신공항과 연계하여 기관 업무를 전면 개편하라!

대구정책연구원, 최고의 싱크탱크 육성을 위해 역량있는 연구원채용

18일 대구광역시청 산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월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 이후 숨가쁘게 진행되는 대구광역시 정책들에 각 산하기관이 대구시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정책연구원에는 역량 있는 연구원 채용을 통해 최고의 싱크탱크로 육성하고, 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연구능력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연구원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구의료원에는 대시민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것과 우수의료진 확보, 첨단의료장비 도입 등을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 공공의료망에 빈틈이 없도록 공공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개발공사에는 제2국가산단 사업시행 및 신공항건설 SPC설립에 주력하고, 특히 대형국책토건사업에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는 '지역



디지털혁신 생태계' 프로젝트에 기관의 명운을 걸고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에는 서민들이 어려워 할 때 도움이 되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특별법 통과 이후 대구시정은 더욱 숨가쁘게 진행될 것이며, 공항을 중심으로 대구시정이 재편될 것이다"라며, "각 산하기관들도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신공항과 연계하여 각 기관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천년을 이어온 참맛'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2023년 포함 총 10회 대상 받아 수산물 부문 인지도·신뢰도 독보적

영덕군의 대표 특산물인 영덕대게가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산물 브랜드 부문 대상을 거머쥐어 이 부문 총 10회 수상의 대업을 달성했다.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고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시상으로 2006년 처음 제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브랜드 평가를 위해 부문별 각 브랜드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조사를 비롯해 소비자의 최초 상기도, 보조 인지도, 브랜드 차별성,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400만 건 이상의 전문 조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영덕대게는 2012년 처음 대상을 받은 이래로 2013년, 2015~2019년, 2021~2023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수산물 부문에선 독보적인 브랜드임을 증명했다.

영덕지역 청정 바다에서 서식하는 대게는 말바닥에 흩어 전혀 없는 깨끗한 모래에서만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대게에 비해 맛이 담백하고 얇은 껍질에 살이 많아 예로부터 임금대게로 진상되는 명물로 이름을 떨쳤다.

그동안 영덕군은 1998년 '영덕대게'에 대한 상표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



▲영덕대게가 2023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수산물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적인 홍보와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대게어업인연합회와 함께 품질 유지와 어장관리에 힘쓰는 한편 선주협회와는 전국 최초의 품질 인증 체계를 구축해 품질을 관리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꾸준히 향상해왔다.

최근에는 체계적인 자원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2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해 대게보육초를 설치하는 등 대게 서식지와 산란장을 조성하고, 2021년부터는 매년 10억원을 투입해 동해대게 자원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목적 어업지도선인 56톤급 영덕누리호를 건조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대게 자원 보호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덕대게는 2010년 G20 정상회의 만찬장에 올라 화제가 됐으며, 2011년 농업진흥청 151

개 시군 인지도 조사 특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대표 수산물 품으로 전시돼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영덕은 한자로 잘 영(盈)과 덕(德) 자를 써 좋은 덕이 가득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덕으로 청정하고 적당한 환경에서 품질 좋은 특산물이 많이 나지만 영덕대게는 그중에서도 단연 일품"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어 김 군수는 "영덕대게가 대한민국 최고 수산물 브랜드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철저한 관리와 보호 아래 안으로는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밖으로는 국민에게 특별하고 귀한 수산물로 오래도록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지켜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대신했다.

장문화/기자

청송군,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도시로 '우뚛'

'청송사과' 11년 연속 대상 수상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청송군이 '청송사과(사과브랜드)'와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을 앞세워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와 '산소카페 청송군'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았다.

이로써 '청송사과'는 11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게 됐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브랜드를 가리는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 브랜드 시상식이다.

올해 18회를 맞은 브랜드 대상에서 사과브랜드 부문에는 청송사과를 비롯한 여덟 개 사과 브랜드가 후보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소비자들은 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청송사과'를 선택한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소비자들이 청송사과를 최고 브랜드로 생각하는 이유를 사과 재배에 적합한 자연환경, 우수한 품질 관리, 앞선 재배 기술과 적극적인 판매 전략에서 찾았다.

일교차가 큰 청송의 지역 특성은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다시 찾는 청송사과 맛의 비밀 가운데 하나다. 청송사과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연평균 13°C가 넘는 해발 240m 이상의 산지에서 재배된다. 사과 생육 기간에 일교차가 크면 사과가 다음 세대를 위해 영양분을 과육에 저장한다. 낮과 밤 사이 큰 일교차가 사과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활동을 촉진하여 과육을 단단하게 하고 단맛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송사과가 자연환경에만 의지해 만들어진 브랜드는 아니다. 더 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사과 재배를 위한 청송 농민들의 수십 년 간 노력은 다른 지역이 따라올 수 없는 사과 재배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게 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는 대한민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대표 과일 자리에 청송사과를 올려놓았다.

특히 청송군은 1994년 '청송사과' 상표등록, 2007년에는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키 낮은 사과 묘목 도입, 친환경 저농약 재배 기술,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청송황금사과 '황금진'을 개발하는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도시 시식 홍보행사, 직거래 판매지원, 청송사과 유통센터 운영, 청송사과 품질보증제 시행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의 높은 신뢰와 호응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최고 사과를 재배한다는 농민의 자부심과 청송군의 노력은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최초로 사과를 수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청송군은 2022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300톤 사과 수출 쿼터 승인과 사과주스 5년간 무제한 수출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사과 생산량 증가가 가져올 가격 하락에 대비해 청송군은 사과 수출량을 1만 톤까지 늘리는 계획을 짜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산소카페 청송군'도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도시브랜드의 저력을 과시했다. 도시브랜드 부문도 청송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후보에 올랐으나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 마케팅활동, 브랜드

선호도 4가지 항목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산소카페 청송군'을 다시 한번 전국에 알리게 됐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청송이 가진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자연 자원을 상징하는 공간적인 색깔을 입혀 지역의 가치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청송군의 도시브랜드이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청송, 전국 최대 규모의 백일홍 정원인 '산소카페 청송정원' 등은 자연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있는 청송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크게 인식하고 공감해 주고 있다.

군은 이러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주산지 왕버들 나무 복원, 신기리 명품숲 조성, 청송정원 주변 생태공원 조성, 청송백자 레지던스 사업 등으로 청송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심신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관광지를 만들 복안이다.

또한 전선지중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청송을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국 최초 관내 시내버스 전면 무료운행은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가용 이용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효과도 톡톡히 보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과와 산소카페 청송군을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로 선택해 주신 소비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청송군은 군민과 함께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보다 우수한 품질의 가장 맛있는 사과를 생산해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웰다잉 문화 조성

구미시 선산보건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와 구미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시 선산보건소 지정으로 읍·면지역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미 작성·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판단이 바뀌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선산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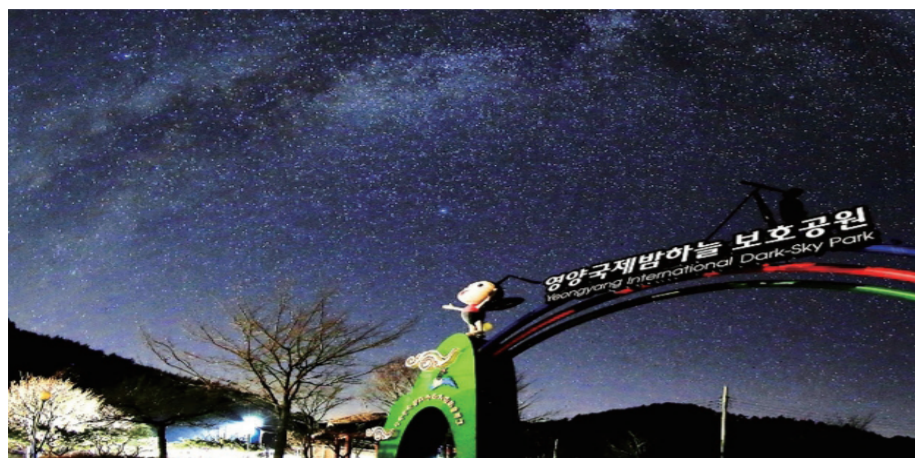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영양군, 다시찾은 봄!!! 아름다운 별과 함께~

2023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전문대 봄맞이 행사 안내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반딧불이 전문대는 2023년 봄을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영양반딧불이전문대는 아시아 최초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안에 위치하여 '가장 별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또한 별이 잘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조명을 관리하는 곳으로 날씨가 맑으면 아름다운 봄바람과 함께 수많은 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우선 과학의 달인 4월, 그 중에 21일은 56회를 맞이하는 '과학의 날'이다. 이를 기념하여 생태공원사업소 반딧불이전문대에서는 당일 방문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당일 어린이 입장객(초등학생 이하)에 한하여 무료입장 및 기념품 제공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4월 29일부터 30일에는 천문캠프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캠프가 '2023 가족천문캠프'로 다시 시작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마스크 없는 오랜만의 봄을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나들이하기 좋은 이때 청정한 영양에서 수많은 별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공공기관장 확대 간부회의 개최...ESG 실천 결의

ESG 경영요소 도입과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전략적 목표 및 추진 과제 발표

경북도는 18일 본관 1층 K창에서 공공기관장 및 도청 간부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ESG 실천을 다짐하는 '공공기관장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SG 도입으로 사회·윤리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북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했으며, 기관별 ESG경영 추진계획 및 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장은 △친환경 업무의 수행(E)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S) △윤리·준법 경영 실현(G) 등 ESG경영 도입과 추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 토론하고 추진과제와 전략 및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경북도는 직원들이 솔선하여 생활 속 ESG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해 '10대 운동(열기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10대 추진과제는 ①회용품 사용 줄이기 ②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하기



③인쇄용지 사용 줄이기 ④청사 조명 소등(격등)하기 ⑤승강기 운행 제한 및 계단 이용하기 ⑥사무실 절전 생활화하기 ⑦친환경 경제 운전하기 ⑧녹색제품 구매·사용하기 ⑨위라벨을

보장하는 근무환경 만들기 ⑩직장 내 괴롭힘 근절하기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1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종이 서류 없는 회의

를 위해 태블릿PC를 활용한다.

또 본관 엘리베이터 19기 중 14기는 주말 운영을 제한하고, 청사 조명도 소등(격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ESG를 실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공부문에서도 ESG 경영체계를 구축해 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공적이익 추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경북도가 앞장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ESG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가 지역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함께해요~ 2023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생명축제' 열려

'차 없는 거리, 지속가능한 도시' 주제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 진행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정현수)는 지역의 60여 개 환경단체와 함께 4월 22일(토)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2023년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생명축제'를 개최한다.

'대구시민생명축제'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해 온 대표적인 환경행사로, 올해는 4월 22일(토)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에서 '차 없는 거리,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주제로 차량진입 전면통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생활실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을 위한 다양한 전시·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구의 날 기념식'은 오전 11시부터 옛 중앙파출소 앞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어서 '대구야 걸! 시민 녹색대행진'은 11시 30분부터 시민 200여 명이 행사장 주변도로 약 1km를 행진하며, 오후 1시 30분부터 2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전거타기 행사'가 중앙로역 3번 출구에서 출발해 대구역네거리, 종각네거리 등 중앙로 일원 약 3km 거리를 달린다.

전시·체험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사장 내 2개 구간에서 열린다. ①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구간'에는 메인무대, 기후에너지마당, 녹색교육마당, 녹색경제마당이 운영된다. 오후 2시 메인무대에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탄소중립 OX퀴즈', '탄소중립골든벨 퀴즈대회'가 열린다.

②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

간에는 주제관(생태교통 대구), 자원순환마당(바리바리 장터), 생태교통촌이 함께 운영된다. 주제관에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등 교통 관련 시민참여 정책 홍보물과 생태교통사진 등을 소개한다.

생태교통촌에는 아동용·로드용·미니벨로·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가 전시되며, 느낌보자전거대회,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및 체험, 롱보드·BMX 등 자전거 모기공연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메인무대에서 대구 독립음악예술인들이 시민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공연을 펼쳐 즐겁고 자유로운 축제분위기가 조성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 등은 행사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4월 22일 0시부터 24시까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네거리 구간을 시내버스, 택시 등의 차량진입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교통통제 안내문을 사전에 홍보하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17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변경(우회) 운행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이중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구시민생명축제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활동, 대중교통 이용, 1회용품 줄이기 등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7년 연속 공약실천 최우수 SA등급 획득

전국 지자체 공약실천계획 평가서 경북 유일 7년 연속 최우수

영덕군이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3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획득해 이 부문 7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평가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 로드맵, 재정계획 등의 실행 방안과 공개 여부를 진단하는 사업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작년 12월 5일 공약실천계획서 평가를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를 발표했으며, 지자체들이 공약실천계획

서를 작성해 지난 1월 30일까지 지역주민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

이어, 전문가와 활동가로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25일간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는 1차 평가를 거쳐 평가단이 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얻도록 3월 3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지난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의 기준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항목에 따른 35개의 세부 지표별로 절대평가로 진행해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 80점 이상은 A등급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영덕군은 전국 82개 군 단위 중 8곳 밖에 없던 경상북도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SA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로써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매니페스토평가 최우수 등급

을 받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그동안 영덕군은 지난해 7월 들어선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취임 직후 '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을 제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덕'이라는 비전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색다른이 있는 문화관광 △같이 하면 행복한 복지 △웃음꽃 피는 농산어촌 △마음 나누는 소통행정의 5대 군정 목표에 따라 김광열 영덕군수의 선거공약을 46개 사업으로 체계화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 영덕군 주민배심위원단의 검토를 거친 후 지난 1월에 공개하는 등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실천계획 준비로 공약 실천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선 8기의 공약실천계획 평가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만큼 앞으로 있을 공약이행평가 역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군민과 약속한 사항들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문화/기자

42억 아시아의 꿈과 희망이 예천에서 달린다!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 카운트다운 40여 일 앞으로

예천군은 지금 42억 아시아의 꿈과 희망을 품고 달릴 국제대회 개최 준비로 분주하다.

오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예천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제20회 예천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40여 일 앞두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열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2년마다 20세 이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무대로 아시아 45개국에서 선수, 코치 등 약 1,500여 명이 참가하는 등 대규모로 열리는 국제대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천군이 최초로 개최한다.

▲ 스포츠마케팅 역량 결집, 아시아 육상의 중심도시로 도약!

전국 대다수 도시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소멸이라는 난제에 빠져있으나 이러한 위기 속에 예천군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와 각종 투자유치 외에도 중장기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돌파구를 마련해왔다.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산업 못지않게 스포츠산업은 지역이 생기를 불어넣는 동력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예천군은 각종 대회와 전시훈련을 위해 9만여 명의 양궁·육상 선수들이 찾고 있다. 전국 유일의 전천후 실내 육상훈련장은 물론 최신식 훈련 장비와 시설 등을 갖춘 육상인들을

유혹해 왔다.

예천군은 아시아 육상의 미래를 책임질 재목을 발굴하는 최고 권위의 U20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 육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참이다.

▲ 행정적 지원은 물론 신속한 재정 투입, 대회 준비 '착착'

대회 유치가 확정된 후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회조직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을 기획운영팀과 홍보지원팀으로 나눠 차근차근 대회를 준비해왔다.

자원봉사자와 운영요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집된 900명의 자원봉사자는 선수단 통역, 안내, 시설 운영 보조 등에 힘을 보태고 50여 명의 운영요원도 선발해 별도의 강습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 뒤 경기장 내 심판을 보조하는 역할로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재정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에만 총 9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대회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53억 원의 예천스타디움 구조 변경 공사를 끝냈고,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광판 설치도 완료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명타워 설치와 경기장 도색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수년간 축적된 육상메카 노하우, 완벽한 대회 운영 자신

국제대회의 핵심은 원활한 대회 운영이다. 이미 국제 수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예천군은 매년 5~6차례 열리는 전국규모의 육상대회를 다년간 개최해오며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특히,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대회 개최에 참여했던 다수의 관계자가 이번 대회 운영에 참여하는 만큼 세계적 수준으로 치러질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회 개막 전까지 전국규모 육상대회를 2~3차례 개최해 대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리허설도 한다.

예천군은 육상메카로 자리매김하며 쌓아온 노하우에 글로벌 역량을 더해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기록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 없는 완벽한 무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 예천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기회!

예천군에서는 양궁 유니버시아드나 군인 체육대회의 종목별 양궁 경기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단일 종목 국제대회를 치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 단위 지역에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1년 연기되어 결과적으로 좀 더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이번 대회에서 세계 수준의 육상대



회 개최 역량을 과시해 볼 참이다. 육상도시의 명성을 아시아 전역에 각인시키고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 육상에 희망을 밝혀 주는 계기를 마련할 생각이다.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대회는 단순히 하나의 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5만 6천여 군민 모두가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지역인재 디지털 역량강화로 미래를 준비한다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 개최



경북도는 19일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김천시 소재)에서 미래 디지털 시대의 주역인 지역 고등·대학생을 초청해 '메타버스 미래인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북형 인재양성-취업연계 메타버스 아카데미" 사업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가져올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한 이번 행사는 포항테크노파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기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주요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카오트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실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전 첫 강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IT전문가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이 챗GPT가 몰고 온 인공지능 열풍을 아이폰 출시에 비유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회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로설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후에는 유튜브(YouTube)에서 '미래채널 MyF'를 운영 중인 황준원 대표가 메타버스에 영향을 줄 미래 메가트렌드로 고령화, 인간관계 변화, 생성 AI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조성철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DevOps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및 관리할 때의 소프트웨어 접근 방식인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기술 요소와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분야 지역 스타트업 유메타랩(경산시 소재)의 창업자인 서승완 대표가 생성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떠오르는 직업군을 조명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기업을 초청해 VR, AR, 디지털 휴먼 등 첨단기

술 체험기회도 함께 제공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학생은 "메타버스, 생성 AI 등 최근 많이 접하던 기술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 참석했다"며, "보통 이런 행사에 참석하려면 수도권에 가야 되는데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최신 기술 강연을 듣고, 체험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강연내용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 홈페이지와 포항테크노파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마이스터고 설립, 경북형 메타버스 아카데미, 메타버스-인공지능대학원, 메타버스클럽 등 학업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혁신과장은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이를 진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핵심기술이 메타버스와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올해 첫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환영행사 열어



봉화군은 18일 봉화군민회관에서 베트남 하남성에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엔 입국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는 176명으로 오는 7월 14일까지 약 90일간 봉화군 내 53개 농가에서 계절 근로를 하게 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농가주들의 상견례가 이뤄졌으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체류에 관한 유의사항, 범죄예방에 관한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봉화농협과 업무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급여통장도 개설했다.

한편, 봉화군은 베트남 하남성과 지난 2018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해 지난해까지 120여 명이 입국해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부족한 농촌인손을 도왔다.

봉화군은 이날 176명을 시작으로 5월에는 100여 명, 8월에는 250여 명

등 총 4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순차적으로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봉화군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으로 130명의 근로자들이 수시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봉화군이 지난해 140여 명의 계절 근로자들을 도입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단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의 호응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멀리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근로자와 농가주가 서로 소통해가며 배려해 다시 오고 싶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은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력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체결

영양군은 2023년 4월 19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여행, 기념품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사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두레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두레PD 활동 수행 및 신규 주민사업체 발굴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하고, 한국관광공사는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홍보마케팅 시행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과 함께 관광두레 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도 증진과 지역 고유의 관광사업을 창업·경영할 수 있는 주민사업체 모집을 위한 2023년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 설명회가 개최됐다.

주민사업체 신청 대상은 관광사업 창업 또는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3인 이상의 공동체로, 영양군 관광두레PD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4월 27일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되면 성장단계별로 최장 5년, 최대 1억 1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역색을 살린

주민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영양군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착공...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선순환 체계 구축

경주시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경주시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순항 중이다.

경주시는 효현동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내 유후부지에서 '경주시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 착공을 이달 초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낙영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지역 내 학교 등 공공급식에 공급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골자다.

센터 건립에만 사업비 40억 2000만원이 투입되며, 지상 2층 연면적 1159.27㎡ 규모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농산물 검수와 보관을 위한 저온·냉동시설 등이, 2층에는 사무실과 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육실·회의실이 들어선다. 특히 농산물을 차량으로 실고 내릴

수 있는 하역 공간을 최대 15곳까지 조성해, 그간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한 소규모 학교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준공 후에는 물류 시스템 점검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공공급식을 위한 농산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83곳에 2만 3582여명, 공공·사립 유치원은 53곳에 2196여명이다. 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1일 최대 136개교 2만 5778명분의 공공급식에 들어갈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 영양교사가 포함된 가격위원회를 운영해 적정가격 산정은 물론 공공급식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공급되는 모든 농산물은 안전성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학교급식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됐다"며 "학교급식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경북교육청, '독도! 그 푸른 목소리를 듣다'

도내 기관 및 학교에서 만나는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 시작

경북교육청은 본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독도, 그 푸른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교육청과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독도재단이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한다.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경북교육청 2층 로비에서 첫 전시회를 열고 이후 12월 1일까지 경북교육청 공모로 선정된 25개 직속기관 및 학교에서 1~2주일 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소중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왜곡과 외교청서 발표 등 독도 영유권 역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시회를 개최해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회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독도 관련 지도, 문서, 풍경 등 이미지 자료 35여 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에게 안내 리플릿을 제공해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역사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교육 및 역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통해 학생, 교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최우수(SA)평가 받아 '안동시 공약 실천 가능성 가장 높다... 한국메니페스토 평가'

취임 전부터 공약실천을 위한 시민과의 소통이 결실 맺어

안동시가 17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월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개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갖추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항목 3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실천계획서를 평가해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총점 90점 이상은 SA등급, 80점 이상 받으면 A등급,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소명하지 않은 경우 D등급을 부여했다.

안동시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음으로써 공약의 집행 상황이 순조롭고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약의 실효성, 실천 가능성 등이 타 지자체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방증하게 됐다.

공약 실천계획 수립 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5대 핵심 공약 중 △산단입지 조성 및 확장 공약은 최근 3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후보지



로 선정 받아, 장차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28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62조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추진 공약도 환경부로부터 49.4km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받음으로써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앞으로 안동시는 민선8기 공약의 실천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안동시 매니페스

토 이행검증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인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부터 많은 시민과 공직자가 힘을 모아 완성도 높은 공약실천계획을 만들어 주신 데 감사하다"면서 "위대한 시민과 함께 만든 민선8기 공약을 모두 조속히 실천해 새로운 안동을 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남원시 2023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 선정

“더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도시 남원시 구축”



남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2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보급 솔루션(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지역에 쉽고 빠르게 보급하여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남원시는 40억원(국비 20억, 지방비 2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건·사고 및 재난에 대응해 경찰·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 자동화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관제, IoT 등 체감 서비스를 통해 지능형 안심마을을 구현한다.

부서·기관과 연계한 통합 안전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효율적인 도시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IoT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도시 남원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남원시는 본 사업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시 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남원이 문화와 미래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통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앞으로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도약하는 미래남원을 만들고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함평나비대축제, 축제 현장에 꿈과 희망의 대형 꽃탑 올린다



꿈과 희망의 대형 꽃탑이 함평나비대축제 현장인 함평엑스포공원에 올려지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제 25회 함평나비대축제를 앞두고 지난 18일 엑스포공원 주재관 앞에 지름 10m, 높이 14m 규모의 꿈나무, 희망나무 조형물 2개에 꽃탑 쌓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에는 웨브 사피니아 화분 4,500개가 소요됐으며, 관광정책실 직원을 비롯해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과 크레인 등의 장비가 동

원됐다.

특히, 축제 기간 꽃탑의 꽃이 만개하면 형형색색의 꽃들로 단장한 축제장과 어우러져 주간은 물론 야간 경관으로서도 아름답고 멋진 광경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 전시,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된다.

김영진/기자

구례군, 2023년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전남 구례군은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물가대책위원장인 김순호 군수 주재하에 진행됐으며 기관·사회단체장 및 분야별 개인서비스 협회장, 지방공공요금 담당 과장 등 물가 관련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물가동향과 물가 관련 주요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물가안정화를 위한 공공요금 동결에 합의하고 물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며, 착한 가격 업소와 전통시장 이용하기,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원산지 및 판매가격 표시하기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고물가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군민 모두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역 물가 안정대책 방안을 편성해 요금 과다인상, 구례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가격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거래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점포 경영환경 개선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구례사랑상품권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김순호 군수는 “최근 대폭 상승한 물가로 군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올해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북도,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특화도시도약을 위한 ‘펫그린바이오포럼’ 개최

전북도 ‘반려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위해 산·학·연·관 한자리에 모여

전북도가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특화도시’로 도약을 위해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방향 모색을 위한 ‘펫그린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최근 반려동물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삼았다.

이날 포럼에는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을 비롯해, 김중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 4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임실)부단체장 및 동물의약품기업 대표, 대학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에는 신원식 전북대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박인규 카이스트 교수, 박철 전북대 교수, 오홍근 ㈜휴벳 대표 등이 참여했고, 채수찬 전북대 지역혁신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으로 소병훈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의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4개 시·군 부단체장



들도 각 시·군별 강점을 활용해 반려동물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한 반려동물 산업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김원일 전북대 교수가 ‘전북대학교 펫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홍승표 전북대 교수는 ‘반려동물 의약품산업 전망’에 대한 주제를 발표해 전북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 신원식 전북대 농생

명식품국장은 “전라북도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설명하며, 전라북도 반려동물관련 기업유치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발전적 경쟁을 담당하며 앞으로 전북이 반려동물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반려인이 1,500만 시대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의료, 펫푸드, 펫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시·군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사업을 진행해 전북이 선도적으로 반려동물 헬스·라이프케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 “통일의 꿈 안고 뛰다”

22일 통일기원 기념행사, 23일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제17회 정남진장흥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오는 23일 장흥군 담진강변에서 열린다.

장흥군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올해 대회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민 20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회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2시에는 ‘정남진에서 중강진까지’ 통일기원 행사를 열어 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를 응원한다.

정남진전망대 광장에서 펼쳐지는 통일기원 기념행사에는 박 터트리기, 평화 비둘기 풍선 날리기 등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어 오토바이 70대가 참여한 통일기원 라이딩이 정남진전망대에서 담진강변에 있는 마라톤 출발지점까지 진행된다.

23일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풀코스

와 하프코스, 10km 단축코스, 5km 건강코스까지 4개 그룹으로 구분돼 치러진다.

오전 8시 20분 개최식을 갖고, 스트레칭 제조 후 8시 50분부터 차례로 출발한다.

하프코스(21.097km)는 지천터널 통과 100m 지점에서 돌아오며, 단축코스(10km)는 부산면 교차로에서 반환하는 코스다.

건강코스(5km)는 부산교 앞을 경유, 담진강 제방길을 따라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풀, 하프, 10km 참가자에게는 장흥군 특산물 선물세트, 5km 참가자에게는 스포츠 양말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행사 당일에는 두부, 막걸리 등 푸짐한 향토음식을 제공하고,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봉주 선수가 참석해 팬 사인회를 연다.

김성 장흥군수는 “올해 전국 마라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장흥군

이 통일 시작의 땅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강진군, 광주지역 관광업계 및 기관 초청 팸투어 가져

가장 큰 관광시장, 광주지역 잡기 위해 안간힘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5일, 광주지역 여행업계 대표 및 기관 단체장 등 25명을 초청해 당일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는 강진군의 여행상품이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업계 종사자, 유관인사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답사 여행으로, 행사 자체의 만족도에 따라 홍보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번 광주지역을 위한 팸투어는 한국관광대터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진군의 전체 방문자 중 광주·전남이 70.2%로 집계됨에 따라, 가장 큰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이어가기 위한 군의 의지로 풀이된다.

답사는 강진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색과 명상의 공간인 백련사의 동백나무숲길 따라 다산초당을 지나 사찰음식 체험, 강진만생태공원 및 영랑생가, 사의재 조만간 마당극 관람, 가운데에서 해안선 생태탐방로 트래킹, 질트랙 체험, 고려청자박물관까지 관



광객이 되어 돌아보는 코스로 진행했다.

한우리 여행사 국순철 대표는 “광주에 여행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2번씩 매달 강진을 찾고 있지만 강진

의 숨은 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강진을 대신할 수 있는 곳은 강진밖에 없다”며 답사 내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석 대표이사

는 “여행사와 협업을 통해 테마별 여행 상품을 기획해, 관광객 유치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관광객 유입의 의지를 밝혔다.

추윤호/기자

함평군, '116억대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사실 무근' 반박

사업비 증액은 사업지침 의거 농식품부 승인 완료

전남 함평군이 한 인터넷매체에서 보도한 '116억대 사업 특정업체 밀어주기'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함평군은 18일 "'2022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추진 체계상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함평군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농업법인 등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과 전남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을 두고 특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상자인 농업법인이 사업 신청 당시인 2021년 10월경에는 '21년도 사업지침의 표준사업비를 적용해 2022년 1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데다 2022년도 시

행지침도 변경되어, 사업대상자의 변경신청을 받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사업비가 변경됐다.

해당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행정과 최측근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군은 오히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극적인 기사만 양산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실명을 뚜렷하게 밝히라"고 되레 주문했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현재 정부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다는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최신식 에너지화 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정부 지침 등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남도-경남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시대' 실현 맞손

상생발전협약...남해안 종합개발청 등 12개 과제 연대·협력



원박람회 등 남해안 엑스포 상호협력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협업 방제 ▲원예식량 작물 신제품 개발·육성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 두 지역 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경남도가 함께하는 행정협의회 구성

을 모아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과제가 이번 합의문에 담긴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활짝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정부 조율이 국내에는 만들어진 적이 없는 데, 전남과 경남이 함께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두 자치단체가 상생 발전을 위해 공동 작업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 고정익동(전투기 생산 시설), 우주센터 등을 둘러보고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상생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협약 이전에도 탄성소재벨트 및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 공동 추진, 남도2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가 계획 반영, 경전선 고속철도 구축 등 가시적 협력 성과를 냈다.

정해명/기자

화순군,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정책 제안 공모

관광·농업·경제 등 5개 분야...전국민 대상 5월 26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3 화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군정목표에 따른 5개 분야 군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일자리 풍부한 화순경제,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 다함께 누리는 복지화순이며 화순군정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실무심사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전문심사위원회의 등 3차례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 200만원(1명), 금상 150만원(2명), 은상 100만원(3명), 동상 50만원(4명)을 선정하게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화순군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적극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화순군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식품+기술' 나주시, 푸드테크 산업 선점 나서... aT·농기평과 업무협약

전담조직 신설 등 정부 푸드테크 정책 선제적 대응

전라남도 나주시가 농식품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푸드테크(Food Tech)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 핵심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T),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이다.

식물성 대체식품, 식물 프rinting, 무인 주문기,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푸드테크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나주시는 18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춘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과 '푸드테크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곳 기관은 협약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사업, 용역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발전시키



기로 했다. 또 관련 기업·기관 유치, 농업인 소득증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ESG가치 실천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푸드테크 시장 고성장대 따른 정부 정책에 대응, 농식품분야 핵심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푸드테크 융

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융복합 인재 3000명 양성, 1천억원 규모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푸드테크 선도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전담 조직인 '식품산업 개발TF팀'과 3월 '푸드테크추진단'을 신설했으며 농식품부에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푸드업사이클링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국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aT도 지난 2월 전담부서인 '푸드테크육성부'를 신설했으며 현재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에 유관기관 자격

으로 참여 중이다. 여기에 농기평과 함께 지난 1월 정부가 출범한 'K푸드 플러스 수출확대 추진본부' 협력 기관으로도 참여하고 있어 나주시 푸드테크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aT, 농기평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선점과 육성에 총력을 다해가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 성공적인 상생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해남군, 매니페스토 평가 전남 유일 5년 연속 최우수(SA)



해남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하는 2023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했다.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은 전남도 내 유일한 결과로, 해남군은 민선7기 4년 연속 최우수(SA)에 이어 민선8기 들어 첫 평가에서도 최우수를 획득하면서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5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급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의 결실로, 민선8기에도 군민과의 약속을 모두 지키고 있도록 군정 전반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매니페스토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실천계획에 대해 기술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4개 항목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검증을 통해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하여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해남군은 민선8기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의 군정목표 아래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협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등 5대 방

침, 15개 전략, 114개 실천과제를 확정해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공약의 취지, 실행 가능성, 재원, 법적근거 등을 검토, 분석해 군민들에게 해남발전의 장기동력을 마련하고, 백년대계의 비전을 세우는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공약을 확정했다.

또한 군민평가단을 운영해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점검 및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 누구나 공약에 손쉽게 감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운영 등 공약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러한 해남군은 민선7기 연속으로 매니페스토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세부공약 99.1%의 높은 추진율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공약이행 지자체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윤선애/기자

바다·산 품은 완도자연휴양림서 치유하세요

국내 최대 유일 난대수목원 천혜 자연 보유 체류형 관광 제력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국내 최대·유일 난대수목원인 천혜의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주변 유명관광지와 연계해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개장한 면적 112ha 완도자연휴양림은 불가시나무 등 전국 최대 난대림 자생지다. 해발 340m에 자리해 다도해 정경바다, 일출 경관, 장보고대 등, 청해진 유적이 있는 장소, 고금도 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또 완도 명산 '상왕봉'엔 불가시나무와 동백나무 등 770종의 난대 수종이 분포하고 있어 휴양림 이용객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불가시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 2배 이상의 산소를 배출해 공기 맛이 신선하면서도 달콤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해 치유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완도자연휴양림은 방문자 안내센터 1동, 숲속의 집 객실 10동과 삼나무숲속 놀이터, 휴양림 내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다. 숲속의 집 객실은 112㎡(34평형) 2

동, 49㎡(15평형) 8동으로 내부는 모두 편백으로 꾸몄다. 객실 대부분은 남향으로 완도의 아름다운 다도해 전경을 볼 수 있다.

휴양림 주변에는 완도수목원, 완도타워, 해조류센터, 천연기념물인 주도, 정도리 구계등,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청해포구 활영장,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특히 완도자연휴양림이 있는 완도수목원은 전남도에서 1991년 개원한 국립수목원으로 770여 종의 희귀 난대식물이 2천33ha에 걸쳐 분포하는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이자 유일의 난대수목원이다.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입실 당일 또는 다음날 영수증을 제시하면 완도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숲해설 및 목공예체험 프로그램도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숲속의 집 객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 49㎡(15평형)는 비수기 8만원, 성수기 및 주말엔 10만 원이다. 112㎡(34평형)는 비수기 16만 원, 성수기 및 주말 18만 원이다. 산림청 '숲나들 e'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객



실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자연휴양림(061-550-3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석면 완도수목원장은 "휴양림과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객에게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

고 숲의 친숙한 이미지를 더하겠다"며 "완도자연휴양림이 가족과 함께하는 최적의 치유 휴양명소로 인식되도록 홍보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인천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27,530건 안전취약요소 적발

인천광역시시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27,530건의 안전취약 요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 4억여 원 부과와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10개 군·구, 민간단체 등 303개 기관 3,113명이 참여해 관내 260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27,53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했다.

분야별로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3,405건 적발해 과태료 3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383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의 업소 60개소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195개소를 점검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옥외광고협회, 클린봉사단 등 민간단체와 합동

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을 전개했다. 21,410건을 적발해 과태료 7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계도 등의 조치를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관내 키즈카페 130개소 및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270개소를 점검했으며,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 설비기준 적합여부를 집중점검해 64건을 계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도민의 보행 안전 위험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

상가 밀집 지역 내 보행인이 많은 인도에서 8시간 동안 사다리차로 철거작업

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8개소의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작업차 운행업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 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8시간 동안 상가건물 앞 인도에 고가사다리차를 정차시켜 놓고 폐기물 철거작업을 했으며, 간판 제작업자 C씨와 D씨는 안전장치 없이 4시간 동안 상가 밀집 지역 내 인도에 고소작업차를 정차시켜 놓고 건물의 간판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행위들은 도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수반해 도로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도로에서 고소작업차 등으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찾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김제시, 특정공사장 소음 특별점검

아파트 공사장 소음 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추진

김제시는 날씨가 풀려 공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4월말까지 시가지 아파트 공사장 4개소 등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에 대한 소음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시간대와 주말 등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한 소음 발생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굴삭기, 발전기 등 특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기준을 초과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작업시간대 준수, 방음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김제시에서는 인근 주민이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소

음측정기 및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건설회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설치 여부를 파악하여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은 소음측정을 비롯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감시기간에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을 엄정하게 하고 공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며, 특히 고의·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시 시민 모두가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소음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헌태/기자



광주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부정사례 75건 적발

2월부터 2177곳 안전감찰...자치구에 관리·감독 부실 행정처분 요구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합격표시 미부착 등 75건의 부정적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역 내 2177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적정 이행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놀이시설의 관리·감독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검사 실시여부 ▲안전점검 실시여부 ▲보험 가입여부 ▲관리자 안전교육 이수여부 ▲안전진단 실시여부 등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합격표시 미부착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미입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



관리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 3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 즉시 조치가 필요한 ▲어린이놀이시설 안내간판 관리 미흡 ▲어린이 놀이기구 일부 파손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정비 미흡 등 43건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감사부서에 관리·감독 부실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 매일 1회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를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온라

인)에 입력해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시민이 직접 안전감찰 주제를 선정했으며, 1순위로 꼽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안성시 호수 주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안성시는 공공수역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관내 5개 호수 주변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대상 호수는 금광호수, 칠곡호수, 청룡호수, 고삼호수, 만수호수이며, 오수 발생량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 및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은 '하수도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537호, 2022.2.11.)'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상의 미흡으



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상영 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

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고, 호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정호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시현/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UFTC 영양축제 관려재단

*Image: Freepik.com. The cover has been designed using assets from Freepik.com

제주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집중 점검

올해 1분기 12건 위반사항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적정운영 여부 ▲방음 및 방진벽 설치 여부 ▲공사차량 진·출입로 세륜(살수) 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 살수 여부 등이다.

올해 1분기 총 428회의 공사장을 현장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은 총 12건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7건,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관련 변경신고 미이행 3건과 방음시설 미설치 등 2건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하여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천공기, 굴삭기 등 특정공사 장비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으며,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사장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현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시 환경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곽건기/기자



아산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투자유치 도시부분 4년 연속 대상

박경귀 시장 "잠재력 있는 도시 아산, 기업 투자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아산시가 2023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투자유치도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동아닷컴·한경닷컴·iMBC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으로, 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부문별 각 브랜드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 조사와 전문가 그룹 조사를 통해 후보 브랜드를 선정 후, 인지도, 차별성, 신뢰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대규모 소비자 조사를 실시해 수상 브랜드를 최종 선정하는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투자유치도시' 부문은 아산시, 광양시, 여수시, 옥천군, 용인시, 제천시, 창원시, 청주시 등 8개 시·군이 경합을 펼친 끝에 아산시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아산시는 2019년 4개 기업 572억 원, 2020년 21개 기업 6000억 원, 2021년 41개 기업 1조 2591억 원, 2022년 36개 기업 2조 2901억 원 등 매년 자체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갱신하고 있다.

시는 그간 기업의 투자 상담 요청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의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투자처로서의 아산시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맞춤형 투자 상담을 실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시에 4조1000억 원 추가 투자를 발표한 만



김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 아산'의 위상은 앞으로도 더욱 공고해질 예정이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경귀 시장은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시상식에서 4년 연속 '투자유치도시' 부문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많은 동료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박경귀 시장은 "우리 아산은 약

1000만 평에 달하는 16개 산업단지의 조성을 새롭게 개발 및 계획 중"이라며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도약과 성장이 담보된 아산의 잠재력을 여러 국내외 기업에 적극 알리겠다. 더욱 발전할 아산의 내일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대한민국 대표 첨단 산업 도시인 아산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그 무대를 확장한다.

이미 영국 에드워드, 룩셈부르크 로타렉스, 독일 파이프베컴 등 우량 외투기기업의 투자도 이어진 만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주목하는 산업도시로의 발돋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17일 미국으로 출국한 조일교 부시장은 4박 6일 일정으로 현지 기업들을 방문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찾아가는 주민자치 과정 개최

'2023년 찾아가는 주민자치과정'이 19일 오후 2시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주민자치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제시 및 여러 사례를 통해 업무 수행을 돕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등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여,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강사가 '주민자치 활성화 및 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흥미롭게 구성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공감을 이끌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질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주민자치 과정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도 높이고, 각 위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로 활기찬 마을을 건설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영동군, 민선8기 지자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 '최고등급'.. 도내 유일

충북 영동군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이 전국 시·군·구의 공약 이행 실천 계획서에 나타난 정책목표,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영동군이 종합 평점 90점 이상에 부여되는 SA 등급을 받았다.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SA 등급을 획득했으며,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평가는 지난 1~4월 전국 226개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약 실천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반영한 1차 평가와 지적 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소명과 보완자료의 2차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갖출성(60점), 민주성(25점), 투명성(15점), 공약 일치도(PASS/FAIL)의 4개 분야 35개 지표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 결과 5대 분야 합산 점수가 90점을 넘어 SA 등급을 받은 군 단위 지자체는 영동군을 포함해 총 8곳에 그쳤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능력과 군민행복 증진을 위한 영동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군은 현재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의 비전 아래, △2대 목표 △5대 약속 △10대 핵심과제 △60개 공약 사업을 확정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동해시, 대진·어달·망상 어촌마을 정주여건 대폭 개선

4. 18.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동해시는 어촌의 생활서비스 개선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근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국·도·시비 등 70억원을 투입해 대진동·어달동·망상동 일부(노봉) 90만 3300㎡의 해안마을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18일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지휘부와 관련 부서장, 앵커조직, 용역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용역 보고회에서는 용역사로 부터 대상지 현황 및 서비스 수요 조사 및 분석, 대상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 소요 예산 배분 및 연차별 실행계획 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또, 최근 주목해야 할 관광트렌드인 팬데믹 이후 소비심리 변화, 근로환경 변화, 여행행태 등 동해시가 주목해야 할 관광트렌드와 맞춤형 전략이 제시되는 등 용역 보고자료에 대한 부서 간 실무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어촌환경 조성, 해양레저 관광기반 확충, 관계인구 유입기반 조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어촌살이 정착 지원을 통해 평안한 일상이 깃들며 어촌생활과 가치로운 삶이 완성되는 어촌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진항 어판장 2층에 관광안내소와 관광플랫폼을 구축하는 동해 바다탐험항 조성, 해양레저 관광객 부상시 응급처치 및 의약품 구매를 위한 메디큐브 설치, 어구보관장고의 콘크리트 벽체 균열과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개량을 통한 전시공간 조성을 비롯해,

주차공간 확장(전기차충전소 설치), 소화전 설치, 배수로 개선, 핸드레일 설치, CCTV 조성 등 기반시설 조성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영동선(KTX)이 관동, 7km 떨어진 곳에 목호역, 독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관광명소인 목호동대,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도재비골스카이벨리 and 해랑전망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관광지와의 시너지효과로 생산파급효과는 140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53억원, 수입파급효과 15억원, 취업효과는 14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대진 일원 어촌 활

력 증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어촌 맞춤형 생활서비스와 기본 안전시설 마련으로 어촌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가공과 유통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우리 시 수산물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단양군,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사업 선정

의료인프라 부족에 고심하는 단양군이 스마트 건강관리 카드를 꺼냈다.

19일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동 주관 국민건강 관리사업에 스마트 만성질환 관리·통합케어 지자체 실증과제가 선정됐다.

공동 추진하는 단양군과 강북삼성병원은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사업을 통해 국민건강 서비스 확대와 의료비 절감, 서비스 모델 개발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군과 강북삼성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으로 2년간 17억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

특히 강북삼성병원은 단양군보건소와 함께 앞으로 2년간 스마트 헬스케어와 통합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실

증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의료료 기반 스마트 만성질환관리와 돌봄을 연계한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 설계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통합케어 서비스 실증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군 보건소는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모바일 헬스케어' 부문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우수한 성과로 원장상을 받은 바 있다.

올해 7월 완공 예정인 단양군 보건 의료원에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구축이 계획되어 있어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 운영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군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외계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발굴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임은주 단양군보건소장은 "스마트 통합케어 서비스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관리 실천율을 높여겠다"면서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지자체 보건 의료 운영 부담 감소와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태백시, '대한민국 안전大 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태백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 예방활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대진단)을 4월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총 61일간 관내 위험시설 42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축시설, 공공체육시설, 교량, 산사태취약지역, 급경사지 시설 등으로 시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토목·건축·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각 가정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사업장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시민들이 직접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집중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시설 선정, 점검, 후속조치를 입력하는 등 체계적으로 위험시설 이력을 관리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사용제한 등 철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도 내 가정, 내 업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자율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유상근/기자



달성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신규사업단 개소 자활사업단,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까지



달성군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달성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을 개소하고 있고, 현재 18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약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하는 에코워싱 달성사업단은 어린이집, 유치원, 기업 등의

식판, 컵 등을 수거해 세척 배송해 주는 친환경 사업으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환경보호까지 구상한 사업으로 공익과 수익의 공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을 아낌없이 지원할 할 것을 약속하고, 기업들과 각종 단체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 드렸다. 앞으로 사업단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에 창업 및 환경보호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케이메디허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참가 우수한 CDMO 기술력 홍보로 기업지원 성과 확산 노력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제13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KOREA PHARM&BIO 2023)에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는 케이메디허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후원하고, 지난 2022년에는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의약품 및 바이오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전시회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의약생산센터가 보유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술력 홍보 및 1:1 컨설팅을 제공한다.

실제로 지난해 케이메디허브의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주)키버스 등의 기업들과 전주기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룬 바가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는 첨단의료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난 2016년부터 매년 KOREA PHARM&BIO 전시회에 참가해 왔다"라며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중소·벤처계약기업들에게 케이메디허브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김해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 거점도시 도약

김해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한 2023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분야 처음으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반 구축 사업으로 향후 국내 전자약 연구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연계, 수도권과 지역 대형병원-기업 연계 같은 네트워크 강화로 미래 의료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의생명 거점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자약은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를 말하며 디지털치료기기는 환자의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는 먹는 약의 화학적 부작용을 방지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비대면 원격 진료의 근거가 되는 의료분야로서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120억원)과 함께 첨단 의료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47억원을 포함, 총 7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한국전기연구원, 경상대병원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전자약·디지털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기술실용화지원센터 건립 ▲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실용화 장비 및 설비(GMP) 시설 구축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실용화 지원 윈스톱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전자약·디지털 치료기기 거점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김해시가 디지털케어 분야에서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도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경북도'GB-유니콘기업육성프로젝트'추진

민관협력 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북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GB-유니콘기업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의 창업보육기관, 연구개발전담기관 및 대기업과 연계해 상호 시너지 극대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동반 성장으로, 다가올 지방시대에 민간·지방주도 상생 성장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유니콘 기업은 1천204개사(CB Insights, '23.1월 기준), 그 중 미국이 651개사(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국은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면서 유니콘 기업 현황이 창업·벤처 생태계 중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CB Insights 등재 기업 14개사(세계비중 1.2%)와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발굴기업 8개사를 포함한 22개사다.('22년 12월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아기거대신생기업(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 기술전문가 멘토링, 창업·벤처기업-대기업의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를 연계해 중기부 '아기거대신생기업(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도내 소재 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상북도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을 통해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선발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정부 예비 유니콘 선정사업 선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지역 대기업의 성장 프로그램을 접목 활용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포항에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경제 선진화를 위해 지역 벤처밸리 조성을 목적으로 "바이오전용인큐베이팅센터 구축('20. 11월)"과 더불어 '21. 7월 개관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통해 우수기업 선발에서 성장까지 지역 정착형 벤처 밸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우수 스타트업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북도, 삼성전자, 영남대학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으로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위해 "C-Lab Outside 경북"이 지난 13일 경산 영남대학교에 문을 열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 보고회 시행 및 재평가 실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해 성장 저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기업의 성장 디딤돌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 중 성장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성장계획이 있으나 코스타 등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 벤처기업의 분야별 전문컨설팅, 예비 상장보고서 작성 및 제반비용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북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도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기술의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기업 관련 기술, 경제, 산업동향 파악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현지 투자환경 조성 및 시장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북도의 강점인 기술창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환경을 위한 "창업, 벤처 금융 지원 및 투자환경 조성"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기술 평가보증으로 시설 및 운전자금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로, 지원 한도를 (일반)2억원/(우대)3억원을 저리(연 1%) 용자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22년도에는 자금이 조기 소진됐다.

"청년 기술창업자금 조성"을 통해 기술기반의 창업기업에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연계한 융자 지원으로 청년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20억 규모로 조성해 추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4개 벤처펀드 1천256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도약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벤처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로 전국은 전년도 대비 11.9% 감소한 6조7천64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경북도는 전년 대비 오히려 20억원 늘어난 1천167억원으로 위기 속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창업·벤처 역량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 발굴→초기사업화→성장 가속화→글로벌/판로개척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 혁신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투자 4개사 41억, 52명 증가)

경북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지원(9개사 120백만원 펀딩 성공)

스타트업-중소기업 밋업(Meet-Up) 프로그램(6개의 공동 IP를 출원)

중소벤처기업 AI 기술융합 스케일업 지원사업(특허출원 7건 및 무상 기술이전 8건)

중소벤처기업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정부 과제 제안 및 선정 19건,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25건)

경북 TIPS(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6개사 선정 최대 7억원 지원)

기 추진하는 창업·벤처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유니콘 발굴·육성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까지 경북도는 지역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벤처자금 펀드 확대, 제조창업 생태계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연구 전담기관, 대기업의 성장 프로그램 협업을 통해 신산업 분야 및 글로벌 신시장 확대 등으로 지역 대표기업을 육성해 매출 및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지방주도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연구장비산업 기업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연구산업진흥단지 발전방안 협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

대전시는 18일 동구 선사인 호텔에서 대전 연구장비산업 기업대표 및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함께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 성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준희 대전연구장비산업협의회 회장, 연구장비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연구장비산업 현황보고, 이장우 시장과 기업인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연구 장비 수가 가장 많고, 출연연·대학·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장비산업이 잘 조성돼 있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말하며, "특히 연구장비산업은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대전시 전략산업 육성에 매우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4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통해 일류경제 도시 대전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준희 대전연구장비산업협의회장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해준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과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대표들은 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건의했으며,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현황보고를 통해 매출 1,000억원 이상 연구장비기업을 현재 1개 기업에서 2025년 3개 기업으로, 기업 총매출액은 2021년 8,720억 원에서 2025년 1조 2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 연구산업진흥단지 공모에 참여해 연구장비 특화 연구산업진

흥단지로 선정됐다.

대전은 대덕특구 내 출연연 26개소가 위치해 연구장비의 전국 최대 수요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연구장비 원천기술개발, 연구장비관리, 개발인력 교육을 수행하는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구 탐립, 용산, 관평, 전민 등 1.98km가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됐으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지원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관리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4년간(2023~2026) 국비 120억 원, 시비 6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연구장비 실증 및 신뢰성 향상지원사업, 연구장비 기업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연구장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기업네트워크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연구장비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광주전자공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기능경기대회 금5, 은5, 동3 수상

우수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가 지난 3일~7일 개최된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18일 광주전자공고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 6개 직종 총 33명의 학생이 출전해 '산업용로봇'과 '자동차차체수리'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했다. 또 '메카트로닉스'와 '프로토타입모델링' 그리고 '전기제어' 종목에서는 각각 금메달, 은메달을, 'IT네트워크시스템' 종목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오는 10월 14~20일 충남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 선수로 출전한다.

한편, 광주전자공고는 2020~2021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년 연속 은탑을 수상했다. 또 2022년 전국기



기능경기대회에서는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대회 최고 득점 선수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본교 졸업생이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동메달을 입상하는 등 기술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위환복 교

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노력과 지도교사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전공심화동아리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전문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제15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지난 17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여식은 지난 2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에 공무 출장으로 불참해,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했으며 동료 의원들의 축하 속에 이성철 의장으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았다.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의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박은주 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 온 시민들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주신 봉사의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자 :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은주



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파주시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려는 시민분들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이 주신 봉사의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영기/기자

2023년 경기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종합 우승. 안산소방서 차지

지난달 28~31일까지 열린 대회 선수 193명 참가해 6개 분야에서 소방 기술 경연 펼쳐



올해 경기도 최강소방관을 선정하는 소방 기술 경연대회 결과 안산소방서가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8일 본부 청사 3층 대회실에서 '2023년 도 소방 기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용인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대회에는 각 소방서를 대표하는 193명의 선수가 참여해 최강소방관과 화재 전술, 구

조 전술, 구급 전술, 생활안전(차량문 개방·동물포획), 화재조사(3월 22일 별도 진행) 등 6개 분야에서 그간 갖고 닦은 소방 기술 경연을 펼쳤다. 종합별 점수를 합산해 우수관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안산소방서가 우승을, 수원·용인소방서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천·양평소방서는 장려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개인 수상자 30

명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각 분야에서 선발된 대원들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전국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조선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 기술 경연대회에서 보여준 각종 소방 기술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에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무안군, 방송인 배철수 홍보대사로 위촉

무안 해제면 고읍마을 출신 배철수 씨, 18일 위촉장 수여

전남 무안군은 지난 18일 군청 군수실에서 지역 출신 방송인 배철수 씨를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은 배철수 씨의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2년간 지역축제, 농특산물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해 무안을 전국에 알리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방송인 배철수 씨는 "고향인 무안군에서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무안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다"며 "무안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바쁜 방송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 위촉을 수락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배철수 씨와 함께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군의 이미지를 향상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안의 매력적인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배철수 씨는 해제면 고읍마을 출신으로 1999년에 가수 배철수 성대모사를 통해 인기를 얻어 방송에 데뷔했다. 놀라운 성대모사 실력으로 연예계 대표 성대모사 장인으로 활약했는데, 거의 모든 유명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한다. 2017년 한국PD대상 라디오 진행자 부문 출연자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산·대구 MBC에서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명커'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꽃 배달 광고로 더 친숙하다.

정광남/기자



안수원 한국자치신문 회장,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쾌척

안수원 한국자치신문 회장이 17일 장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

안 회장은 장흥군 관산을 출신 언론인으로, 최근 시집 '동심몽명'을 펴내 한국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됐다.

지역 인구늘리기를 위해 자비 2000만 원을 들여 농가주택을 매입하고, 자녀 포함 7인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천관산에 위치한 장편소설 '천관편'을 주제로 3000만 원씩 2회, 모두 6000만 원을 들여 나눔행사로 치렀다.

김성환 가수 초청공연, 지역민 식사

대접 등 지역을 위한 문화 행사를 차례로 진행한 것이다.

이 밖에도 체육센터 기간제 요원 등에게 각 100만 원씩 지원하고, 올해 2월에는 장흥읍과 관산을 다지너 가정에 각 100만 원과 쌀 40KG 2가마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강진 병영면민의 날에는 병영면 발전을 위해 100만 원을 쾌척했다.

안수원 회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주최: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통영시 Sounds From Tongyeong 공연, 경남 도민의 집에서 개최 예정

통영시는 오는 4월 22일 오후 1시부터 창원시 소재 경남 도민의집(前경남도지사 관사)에서 고희안 재즈공연과 통제영무예단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축제를 통한 문화 자산 홍보 파이프 사업으로 경남 도민의집에서 고희안 재즈공연과 통제영무예단 공연뿐만 아니라 나만의 나전체험, 무예체험 등이 준비돼 도민을 만날 예정이다.

유네스코음악창의도시인 통영시는 최근 아시아 최대 클래식 음악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는 10월에는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인 2023 윤이상 국제콩쿠르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5월에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통영시 꿈의 오케스트라'가 서울 초청 공연을 펼칠 예정이며 그 밖에도 우리동네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 통영악사 등 클래식 공연을 공연장 안과 밖에서 연중 즐길 수 있다.

최근 통영시는 창원시, 이천시, 고양시, 진주시, 아산시 등을 방문해 축제 교류를 통한 시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통영시는 임진왜란 3대 대첩도시 교류 협약(통영시, 고양시, 진주시)을 체결하고 각 시의 캐릭터를 진주시에서 제작해 2023년



개 도시에 각각 전시와 축제 프로그램 참여로 서로의 축제를 함께 축하하며 소개하고 있다.

한편 경남 도민의집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공약인 '도지사 관사 도민환원'에 따라 2022년 9월 15일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 도민들에게 개방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중 개최되고 있다.

이용준/기자

서울식물원에 가득 피어난 축제, '해봄축제'를 만나보세요

'해봄축제'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

서울식물원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식물원 일대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체험 등 어우러진 '해봄축제'를 개최한다.

서울식물원 '해봄축제'는 시민들의 여가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의 대표 봄맞이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서울식물원은 해봄축제 기간동안 행사장을 ▲웰컴가든1(진입입장) ▲해봄마당(초지원) ▲같이길(백송길) ▲수련정원(수변텃밭) ▲감탄정원(수변가로서길) ▲봄꽃구름 ▲웰컴가든2(온실대표소입구) ▲미미정원 ▲거인의 정원 ▲푸드트럭 존 등으로 조성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도록 구성했다.

'해봄'은 ▲한 해의 시작인 태양(Sun)과 봄(Spring) ▲따뜻한 봄날, 해(Sun)를 보다(See) ▲새로운 도전을 해보다(Trying)란 뜻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러한 의미를 반영한 ▲그린해봄 ▲아이해봄 ▲반려해봄 ▲다시해봄 ▲같이해봄의 다섯 가지 테마로 기획됐다.

'그린해봄'은 식물탐험대, 작은식물원(테라리움 만들기), 반려식물 상담소, 키친 가드닝, 식물원을 읽어봄(식물전문도서판) 등 식물원에서 식물과 먼저 친해지는 기회를 가져보며 직접 사로서 첫걸음을 딛는 활동이다. 한국테라리움협회, (사)한국사화원예상담협회, 한국시민정원사협동조합+화목토원예치료연구소가 각자 부스를 맡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식물과 정원 관련 상담도 진행해 실생활에서 참고할만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이해봄'은 봄이 되어봄(화관 만들기), 빛을 담아봄(선개채 만들기), 바람을 불러봄(바람개비 만들기), 식물원을 지어봄(종이박스 블록놀이), 식물원에서 그려봄(식물그림 드로

잉), 식물원에서 쉬어봄(캠핑 분위기 보드게임 놀이공간), 풍선아트, 버블 체험 등 소중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쌓아주는 순수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풍선아트가 이뤄지는 곳은 장소적 특성에 맞도록 대형 풍선으로 연출되는 '봄꽃구름' 포토존 주변으로 배치해 또 하나의 경관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

'반려해봄'은 반려견 수제간식·소품·아로마 등 원데이 클래스, 도그요가, 유기동물 패밀리 데이 등 행복한 반려라이프를 위한 생활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다. 함께 하는 신체활동 등을 통해 반려견과 교감하고 건강도 챙기는 도그요가는 식물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그 효과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유기동물 패밀리 데이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으로, 반려견 행동교정 상담, 어질리티 키즈 프로그램, 아로마 해충방지제 만들기 체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토 이벤트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다시해봄'은 플로깅, 봄을 엮어봄(메타세쿼이아 팔찌 만들기), 씨드머그(재활용컵에 씨앗 담기), 바다를 담아봄(바다유리를 재활용한 액자 만들기) 등 자연 순환의 가치를 배우는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버려지거나 버려질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해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활동 자체를 놀이로 만들어 보다 신중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종합안내소에서는 서울식물원에서 조깅을 하는 생활권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보호 활동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에 대한 체험 안내가 이뤄진다.

'같이해봄'은 해봄힐링투어, 설채현의 반려견 클리닉, 아이랑 놀아봄, 봄을 담아봄(페이퍼페인팅), 숲속 힐링

요가, 달려라 피아노, 119수호천사, 112안전드림 등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동행 가치를 확산하는 프로그램이다.

메인무대에서는 다수의 OST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가수 '치즈'의 무대를 비롯하여 유명 비보이단 갬블러크루가 주말 저녁의 활기를 더해주고, 다수의 실력 있는 공연팀들이 음악과 마임, 서커스 등 다양한 공연들로 3일 동안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울 줄 예정이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식물원을 거닐며 서울식물원의 봄을 색다르게 즐겨보는 '해봄힐링투어'를 비롯하여 반려식물 상담소, 공예품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식물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살려 식물관련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된다.

반려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설채현의 반려견 클리닉'은 동물 행동 수정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설채현 원장이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토크쇼를 통해 전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식물원 해봄 축제 기간에 맞춰 연계행사들이 잇따라 진행된다. 서울식물원 온실과 주제정원을 여행진행에 맞게 새단장하는 '식물여행', 빛과 미디어를 활용한 기획전 '빛이 깨울 때',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열린 어린이 놀이공간 '거인의 정원'개장식, 제4회 서울식물원 식재설계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한편 해봄축제 기간중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서울식물원의 대표공간인 온실을 기존 저녁 6시부터 8시로(입장권 발권 저녁 7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야간온실 입장료는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참고로 주간 입장권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



매되며, 주간 입장권을 구매한 방문객은 별도 발권 없이 야간 입장까지 할 수 있다. 야간 입장권은 온실만 해당하며 주제정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주간에만 운영된다.

김대성 서울식물원장은 "식물들이 긴 겨울을 지내고 형형색색 화사하게 꽃을 피우듯이, 장기간의 코로나를 이겨내고 처음 맞는 봄에서 서울식물원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봄, 비쁜 삶에서 쉽표가 되는 서울식물원을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 곳곳서 세계 미술축제 즐겨요"



광주광역시는 광주 전역에서 열리고 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광주비엔날레 재미있게 둘러보기' 코스를 운영한다. 이 코스는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기 위해 특별히 광주를 찾은 외부 관광객과 시민이 세계적인 미술 축제를 한 곳도 빼놓지 않고 구석구석 즐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스는 본 전시와 파빌리온으로 구성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 곳곳을 담았다. 특히 주변 나들이 장소를 연결해 미술축제를 즐기면서 추억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총 9개국이며, 이번 코스에는 4월 개관해 현재 관람이 가능한 7개국의 장소가 담겼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등 나머지 2개국 파빌리온은 5월 개관한다.

추천코스-1 '정적 보기'는 비엔날레 전체 코스를 안내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예술공간 집 ▲호랑이사나무 아트폴리곤 ▲무각사 등 비엔날레 본 전시공간과 ▲시립미술관(네덜란드) ▲은암미술관(중국) ▲GMAP(이스라엘) ▲양림미술관(프랑스) 등 7개국 파빌리온 장소를 둘러볼 수 있다. 코스는 이동 경로를 고려해 연결했다.

코스-2 '차하게 보기'는 5개 자치구로 권역을 나눠 비엔날레 전시공간과 인근 둘러볼만한 장소를 함께 연계했다. 광주 전역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를 권역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고 주변 공원 등지에서 봄을 만끽하며 예술과 함께하는 여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 예술공간의 집 → 은암미술관 → (전일빌딩 245) ▲ (평화공원) → 무각사 → (5-18공원)

▲ GMAP → 양림미술관 → 이이남스튜디오 → 호랑이사나무아트폴리곤 → 이강하미술관

▲ 시립미술관 (중외공원) → 국립광주박물관

▲ (송산유원지) → 동곡미술관 → (장록습지생태공원)

※ ()은 주변 나들이 장소

코스-3 '주말 저녁, 음악과 빛아트 즐기기'는 광주 미디어아트 주요 관람 장소를 소개한다. ▲G.MAP ▲G-타워 ▲옛 도청본관 ▲금남나비정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밤을 아름다운 빛으로 수놓는 미디어아트에 음악을 더해 예술도시 광주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다.

G.MAP에서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G.MAP 사운드 가든' 공연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는 미디어파사드와 함께하는 '복구 비엔날레 문화콘서트'가 4월15일부터 6월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열린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간 열리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축제다. 이번 코스는 카드뉴스로 제작해 광주비엔날레 개막 첫 달이자 봄꽃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4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광주로 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미술도시 광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며 "발길 닿은 곳마다 예술축제가 열리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단오제전수교육관 '강릉, 춤을 잇다'공연 개최

강릉 무용가의 성장과정과 예술활동을 통해 삶을 이야기 하다

강릉시는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장에서 '수요예술마당: 강릉, 춤을 잇다' 기획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13회 수요예술마당 기획공연은 "강릉, 춤을 잇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흥광임, 김의정, 정은혜 3인의 무용가가 전해주는 멋진 춤사위부터 솔직담백한 입담까지 만날 수 있다.

또한, 무용가로서의 성장 과정과 예술 활동을 통한 삶의 희노애락을 김효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진솔하게 풀어내며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

는다. 기획공연은 흥광임 무용가의 태평무(국가무형문화재제92호), 지전춤(오철주안무), 김의정 무용가의 강릉...향에 대하여... 하늘가는 길, 정은혜 무용가의 화백의 가족가방, 서한우류 버꾸춤 등의 전통 및 창작작품을 지역 예술단체인 한소리전통예술단의 반주와 함께 선보인다.

수요예술마당은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의 예술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이며, 2017년부터 국악을 중심으로 퓨전, 크로스오버, 콜라보 등

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더욱 친숙해지고 삶이 여유로워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강릉시 자체 기획공연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다양한 무대공연으로 공립공연장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편하게 예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조성하고, 앞으로도 예술인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예술이 삶에 가깝게 연결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함양 '용평리 쌀전, 곡리단길 마을축제' 성황리 개최

15일 함양군

도시재생사업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마을축제 열어

함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손재현)는 용평리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향노와 생활문화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용평리 쌀전, 곡리단길 마을축제'를 지난 4월 15일 용평리 지리산함양시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용평리 쌀전, 곡리단길 마을축제'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축제를 진행하게 됐다.

먼저, 용평리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양성된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한 시니어카페 교육생들이 기획한 '용평리, 한달음료 시음회'는 4월 12일(수) 1차 시음회를 시작으로 4월 15



일(토) 2차 시음회를 마을축제와 함께 협업하여 아메리카노, 대추차, 동그리강정을 직접 제조하여 축제의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나눔행사 및 시음회를 진행했다.

플라워아트 팀에서는 봄가드닝 행잉바분 나눔행사와 자이언트 플라워꽃바분 포토존을 진행하여 코로나로

움츠려져 있던 지리산함양시장에 향기롭고 다채로운 꽃들로 향연을 이루게 되어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2022년 용평리 향노화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교육을 통해 마을축제 기획을 교육받은 이번 축제를 진행한 마을활동가들은 쌀전 곡식(穀) 테마컨

셉의 '용평리 쌀전, 곡리단길'이라는 네이밍을 선정하여 곡리단길에 어울리는 쌀튀밥, 강냉이 나눔과 함양지역 청년작가들의 풀리마켓, 어린이들을 위한 에코백 꾸미기, 감성포토존(인생네컷, SNS포토존), 지역청년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축제를 방문한 주민들은 "그동안 다녀온 지역축제들과 다르게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어 즐거웠으며, 함양만의 문화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축제들이 매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필 안전도시과장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최한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게 함양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제14회 2023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신바람난 선비의 화려한 외출

기간 | 2023. 5. 5. (금) - 7. (일)

장소 |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및 서천둔치 일원

